

지역 소식통

부안군, 여름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실시

부안군은 지난 20~21일 2일간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주변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유해환경 개선활동은 부안군(교육청소년과),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 등 20여명이 활동에 참여했으며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관광지 등 피서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했다.

음식점과 편의점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단란주점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했다.

부안군은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서울대 자연과학대 입시설명회 · 과학캠프 개최

고창군과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연계해 입학설명회와 여름과학캠프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입학 설명회는 8월7일 오후3시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입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대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생들이 생생한 입시 준비 과정을 들을 수 있다.

또 8월8~10일 여름과학캠프가 강화항공고등학교에서 열린다. 서울대 학장단 특별강연, 과학탐구, 입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설명회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주관으로 2024학년도 수시와 정시 입학전형과 주요사항을 주제로 2시간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대학 시범사업 최종 선정

부안군, 예산 5000만원 지원 받아... 대학 연계 우수 강사진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이 지난 6월부터 14개 시군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시민대학 시범사업' 공모에 세차례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부안군은 시민대학운영 예산 5,000만원(도비)을 지원받아 대학과 연계하여 우수 강사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주대·전주비

전대·예수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3개 교육과정(지역특성화, 생활과 건강 부모교육) 6개 프로그램(로컬브랜딩 시민아카데미, 드론장비, 드론축구, 시니어 구강건강 프로바이더, 시니어 건강관리, 자녀양육지도)을 통해 지역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시민대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부안군은 배움과 나눔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재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시민안전 위해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강화

이학수 정읍시장이 24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정확하고 재빠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예정돼 있어 재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비, 눈, 강, 가뭄 등 피해상황 등목을 철저히 하고 재해우려 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관기관, 각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재해를 예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폭우로 도로 포트홀 등 위험사항이 많다"며 "위험우려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을 철저히 하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장마 후 폭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장마 후 폭염이 예보돼 있어 노약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온열질환이 우려된다"라며 "폭염특보 발효 시 외출과 야외업무를 자제시키고, 무더위 쉼터에 있는 냉방기기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휴가철과 폭염 시에는 칠보 물레미유원지 물놀이장,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등 물놀이 시설에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물놀이 시설 점검은 물론 다중집객업소, 음식점 등 점검으로 식중독 안전관리에도 유의 하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보건소, 폭염대비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고창군보건소가 폭염대응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강화에 나섰다.

올해 폭염으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로 온열질환 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관내 14개 읍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 담당자로 건강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가정방문과 안부 전화 등으로 어르신 건강안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취약계층과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 기초검사(혈압, 혈당) 및 건강상담, 폭염 대응 건강행동요령, 폭염발생 시 신속 대응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에 등록된 건강취약계층과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 기초검사(혈압, 혈당) 및 건강상담, 폭염 대응 건강행동요령, 폭염발생 시 신속 대응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생수와 부채, 쿨타시 등 건강관리 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고창군보건소 관계자는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무더운 여름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폭염대비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읍시, 소득기준 등 검토 20만원씩 1년간... 8월 21일 마감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k.j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담콜센터(1600-0777)나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063-539-8123)에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4일 제2청사 1강의실에서 양봉농가 80여명을 대상으로 꿀벌산물 가공과 프로폴리스 이용에 관한 양봉 전문교육 1회차 교육을 실시했다.

정읍시, 양봉전문교육 실시... 24일부터 총 5회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4일 제2청사 1강의실에서 양봉농가 80여명을 대상으로 꿀벌산물 가공과 프로폴리스 이용에 관한 양봉 전문교육 1회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품목별 전문기술 중점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기간은 이달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마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1차 꿀벌산물 가공과 프로폴리스 이용, 2차 꿀벌의 질병, 3차 꿀벌식물과 양봉의 기본, 4차 꿀벌 일령과 생산관리, 5차 유기양봉과 고품질 생산 등 양봉 사양관리 및 소득화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은 영농 시기별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 재배기술 및 병해충 방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예외사항에 대한 해결 등 농업인의 현장사태 중심으로 연중 교육이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들이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품목별 네트워크 체계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농업인과 전문가, 기술센터가 함께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